

## 420장 - 너 성결키 위해

- (1)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 (2) 너 성결키 위해 네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네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 (3)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 (4)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네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 321장 - 날 대속하신 예수께

- (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 (2)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 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 (3)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위해 다 쓰게 하소서
- 후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림 내 갈길 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11월 11일(월) 기도 담당 : 박병근 집사

2019년 11월 9일(토)

##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 여는말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송 .....	420장 .....
기도 .....	서창석 집사
성경봉독 .....	호세아 9장 7~10, 15절 .....
찬양 .....	새벽찬양대
설교 .....	『기브아, 바알브울, 길갈』 .....
기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찬송 .....	321장 .....
축도 .....	설교자

### ☞ 오늘의 말씀 < 호세아 9장 7~10, 15절 >

- 7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이니라
- 8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 9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 10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 15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11월 9일(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용서로, 회개와 절제로, 기도와 감사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여 가장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형제간 잔인함으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브아'의 죄악이, 은혜를 저버림으로 주님을 배신했던 '바알브올'의 죄악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을 거부했던 '길갈'의 죄악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봅니다.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살며시 찾아와 우리의 삶에 꿈틀거리는 이 죄악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도말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132년간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의 등불'로,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한국교회의 거룩한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에게 허락하신 목회 비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하옵시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며 귀하게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옵시고, 주의 크신 팔과 강한 오른손으로 강력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시며, 북녘의 지하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속히 도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